

특집 ■ 카자흐의 한인사회

카자흐인들의 의식조사

명 드 미 뜨 리
<알마티국립대학 교수>

최근들어 고려인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과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인 노력에 대하여 우리들은 무척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작성자들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과 재카자흐스탄 한인협회와 한국협회의 협조하에서 사회학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알마타와 우쉬또베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선정하였다. 비교가 가능한 분석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과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가 이용되었고, 러시아인들과 카자흐스탄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이용되었다. 그밖에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알마타 고려인 문화센터의 직원들, 고려일보의 직원들, 고려인 방송국 직원들, 알마타 한국교육원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하여 한인사회가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인사회가 현재의 개혁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미래에는 어떠할 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과거의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카자흐스탄이 독립되고 사회전반이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연구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에서 한국학부가 만들어졌고, 고려인들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연구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과 다른 나라의 한국학자들로 구성된 한국학협회가 만들어졌다. 한국대사관은 이 한국학협회를 적극적으로 돋고 있다.

고려인 사회의 사회민주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988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선 약 10,3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약 70%가 카자흐스탄 남부에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 전체인구에서 한인들은 0.6%를 차지하고 9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다. 배분율을 비교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전체 고려인들의 84%가 도시에 살 정도로 고려인들은 도시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인구의 증가의 원인은 자연적인 증가 및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60% 정도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모두 최초로 러시아 균동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5~7 세대 후손이다.

33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그중 200명은 알마타에서, 135명은 우쉬또베에서 살고 있다. 49%는 여성이고 51%가 남성이다. 설문조사에는 도시민, 농민, 예술가, 공무원, 사업가, 연금생활자, 학생들 거의 모든 사회계층이 참가하였다. 사회에서 민족간의 안정적인 관계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요인이다. “현재 민족관계가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6.6 %가 전과 같다고, 7.5%가 나아졌다고, 41.5%가 악화되었다고, 3.9%가 무척 악화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설문을 종합하면 거의 절반이 45.9%의 응답자가 민족간의 관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족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하여 민족간의 보다 깊은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63.3%는 개인적으로 민족갈등의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민족갈등을 겪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정리하면 6.6%가 이웃간에, 5.4%가 직장에서, 2.9%가 공공장소에서, 0.3%가 기타의 장소에서 그러한 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민족갈등을 겪었다는 35.9%정도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문제가 쉽게 없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이(79.7%) 민족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였고, 19.1%가 민족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1.2%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19.1%에는 민족간의 다양한 종류의 압력이나 싸움이 포함된다. 비교를 하면 독일인들은 42%, 위구르인들은 35.3%가 민족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민족간의 분쟁 가능성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민족간의 문제에 있어서 76.1%가 민족관계의 악화를 두려워하였고, 22.7%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였다. 1.2%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88.6%의 독일인들이 68.6%의 위구르인들이 두려워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체첸전쟁, 타지키스탄 내전, 나고르로 카라바흐 내전, 우즈베키스탄의 터키인 박해사건 등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고려인들은 민족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민족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81.8%가 경제, 법에 있어서의 개혁에, 33.4%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4.3%가 정부기관에 소수민족을 공정히 등용하는데, 13.7%가 정부와 기득권층의 퇴진에, 21.5%가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에, 24.2%가 인권을 존중

하는 것에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대답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사정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간의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간의 긴장을 일으키는 민족관계의 악화에 대하여 41.8%가 구소련체제의 붕괴, 37.9%가 민족주의자, 26.9%가 관료들의 이기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독일인들은 12.0%, 49.0%, 24.4%의 순으로 답변하였고, 위 구르인들은 46.4%, 42.2%, 21.7%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전체적으로 세 민족의 답변은 비슷하다. “자신을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56.7%가 “예”라고, 8.4%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4.6%가 답변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자신을 카자흐스탄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34.3%의 응답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에게서 모국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약간은 놀랄지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46.3%가 태어난 곳, 13.1%가 구 소련, 32.9%가 카자흐스탄, 6%가 조상의 나라라고 답변을 하였고, 2.4%가 대답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을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고,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올바른 국가정책의 수립은 시급한 문제이다. 82.7%가 카자흐스탄 정부는 모든 민족에 대하여 공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12.5%가 소수민족에게 특권을 주어야 한다고, 13.7%가 민족적인 차별이 주어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대답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42.7%가 자신을 소수민족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21.2%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 35.8%는 단지 카자흐스탄 국민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0.3%는 대답하지 않았다. 위의 대답에서 우리는 50%가 넘는 고려인들이 원주민들과 이주민들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민족성이 당신이 인생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8.8%가 교육에서, 24.8%가 취업에서, 50.7%가 승진에서, 14.6%가 물질적 복지의 향상에서 방해요인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6.6%는 방해요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11.9%가 답변하지 않았다. 민족성 문제는 많은 응답자들이 근심하는 문제였고, 우리는 사회가 점차적으로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좋지못한 점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정을 5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1등급(가장 나쁨)- 0.9%, 2등급 -2.7%, 3등급 -26.3%, 4등급 -35.5%, 5등급(가장 좋음) -23%의 순으로 대답하였고, 11.0%가 대답하지 않았다. 58.5%의 고려인들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5등급과 4등급을 주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와는 다르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대한 평가는 1등급 -3%, 2등급 -13.4%, 3등급 -44.8%, 4등급 -15.2%, 5등급 -2.4%로 대답을 하였고, 19.4%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전 의회에 대

한 평가는 더 나쁘다. 1등급 -20.3%, 2등급 -27.8%, 3등급 -20.3%, 4등급 -4.8%, 5등급 -0.3%로 대답하였고, 24.5%가 대답하지 않았다. 새로운 의회에 대하여서는 1등급 -6.3%, 2등급 -14.3%, 3등급 -40.6%, 4등급 -7.2%, 5등급 -21.2%로 대답하였고, 26.3%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변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26.3%가 변하지 않았다. 25.7%가 더 나아졌다. 48.1%가 더 나빠졌다라고 대답하였고, 같은 질문에 대하여 독일인들은 15.5%, 9.8%, 73.1%로 대답을 하였고, 위구르인들은 23.4%, 12.9%, 62%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위의 대답을 살펴보면 52%의 고려인들이 안정적인 경제적인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8.1%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내부의 격차를 벌여놓고, 민족간의 격차를 벌여놓는 경제적 상황은 한 민족의 다른 민족에 대한 오해와 그로인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민족간의 파괴로 나아갈 수 있다. 다민족 사회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는 사회심리적 상태는 미래에 대한 확신, 과거역사에 대한 존중, 민족적 가치에 대한 존중,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 관습과 전통에 대한 존중 등에 달려 있다. “고려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79.7%가 언어, 전통, 관습의 보존을 이야기 하였고, 3%가 한국으로의 이주, 39.7%가 소수민족의 권익보호, 3%가 민족문화자치제의 설립이라고 대답하였다.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보다 나은 곳에 살려고 한다. “현재 어디가 살기 좋은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하다.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민족이동은 사회경제민주적인 과정으로서 나타나면서, 미묘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족이동은 보다 좋은 삶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적인 행위이다. 사람마다 이주의 목적이 다르듯이 민족이동의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강제이주의 경우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는 이주과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생활수준은 나빠진다. 강제이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민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도덕적 상실을 줄 뿐이다.

내외부적인 요인의 변화로 인하여 고려인들의 이주조건은 많이 변하였다. 1993년까지는 이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1994년부터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 주의 결과 1994년에는 약 1,000 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다. 1993년에는 3450의 고려인들이 CIS 각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왔고, 그중에 136명만 남고 3114명은 카자흐스탄을 떠났다. 1994년에는 874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왔고, (그들중 96명은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이주하여 왔다.), 1716명이 카자흐스탄을 떠나 전체적으로 938명이 감소하였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떠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16.7%는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 11.3%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8.4%는 부모와 상의하겠다. 31.0%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30.7%는 카자흐스탄에 남겠다. 0.9%는 대답하지 않았다. 독일인들은 52.3%; 17.6%; 9.3%; 14.5%; 4.1%; 2.2%의 순으로 대답을 하였고, 위구르인들은 18.6%; 6.9%; 10.8%; 23.4%; 37.7%; 2.7%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망설이지 않고 이주하겠다는 사람들(16.7%)는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불안, 민족문제, 생태계문제, 인권의 위협을 가장 중요한 이주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정치와 경제의 비상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의 감소, 실업의 위협, 열악한 생활수준, 감당하기 힘든 공공서비스료와 의료비의 인상. 등등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격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77.9%가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상황이라고 대답하였고, 37.3%가 사회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대답하였다. 43.9%의 응답자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문화센터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9%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7.2%가 이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15.2%가 이 센터가 사교를 위한 기관이라고 대답하였고, 9.9%가 고려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라고 대답하였다. 19.7%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23.3%가 카자흐스탄 민족협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8.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68.4%가 이 협회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답하였다. 독일인들은 10.4%, 10.9%, 78.8%의 순으로 위구르인들은 16.5%, 9.9%, 73.7%의 순으로 답하였다. 세 민족그룹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들은 민족협회를 그들의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민족차별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25.4%가 참고 잊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19.1%는 재판에 호소하겠다. 16.1%는 국립민족문화 심사위원회에 호소하겠다. 16.1%는 민족문화센터에 호소하겠다. 16.7%는 직접 정치기관에 호소하겠다. 14%는 카자흐스탄 민족협회에 호소하겠다. 10.1%는 다른 방어 수단을 찾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4.8%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 문제는 각각의 민족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민족의 평등을 위해서는 각 민족이 민족적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사회와 국가 조직에서 정당한 대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민족상호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